

이순신을 다시보자

이순신에 대한 인물평

이내원
<이순신 송모인>

이순신에 대한 인물평으로는 단연 명나라 수군도독 진인(陳璘)의 그것을 으뜸으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은상 선생의 ‘성웅 이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은 원문이 『經天緯地之才 補天浴日之功』으로, 풀이하면 『이순신에게는 천지를 주물러 경영하는 재주와 무너지는 세상을 손보아 새롭게 한 공이 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순신 전사 직후 진인이 선조 임금에게 건넨 이 말은 중국 어문 특유의 과장 표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과 해를 인용한 실로 어마어마한 극찬임에 틀림이 없다. 수 많은 이순신 인물평 중에서도 진인의 이 말을 가장 먼저 인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진인은 이순신 전사 직전 약 5 개월간 이순신을 직접 접하여 교유하고 느껴본 장본인이라는 점.

둘째, 진인은 이순신의 영욕과 정치적 부침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초연한 입장의 제 3국인으로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

셋째, 더욱이 진인은 조선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깔보던 이른 바 상국 명나라 장수들의 어처구니 없는 우월감에 한 수 더하여 자기 나라에서조차 포악하고 거만하기로 이름난 장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진인의 이 평가는 실로 초 극찬임이 분명하고 이순신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이순신과 진인의 진중생활의 편모를 소개하여 재미와 더불어 이순신 인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진인은 명량해전 직후 이순신의 고금도 진영으로 연합 합류한 이후 곧 이순신에게 감화되어 조명 연합 수군의 지휘권을 사실상 이순신에게 넘겨주고 그 주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순신을 이야(李爺)라고 높혀 부르며 “노야(老爺)는 조선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살 사람이 아니오. 명나라에 들어와 큰 벼슬을 해야 할 사람이오” 하며 귀화를 적극 권하였고 이 마음이 이순신 사후에나마 진인이 명나라 신종황제를 움직여 이순신에게 명나라 수군도독의 벼슬과 도독인을 포함한 팔사품을 내리게 된 연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성룡이 그의 회고에서 “왜군이 얼레빗이라면 명군은(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참빗”이라고 개탄했을 만큼 명군의 약탈과 횡포는 원군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통이었는데 이런가운데 굴종의 조선 조야를 통틀어 오직

이순신만이 진인과의 당당한 담판으로 명군에 대한 군벌권을 확보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음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다.

앞서 말한 일본의 해군전략 연구가 사토 데츠타로가 ‘이순신을 인류 역사상 그 짝이 없는 위인’으로 기술하면서 그 덕목중의 하나로 지목한 ‘외교적 수완으로 보나’라고 전제한 이유가 바로 이 이순신의 상국수장 진인에 대한 인격적 제압과 명군 부대중 유일하게 진인 수군만의 노량해전 적극 참전 설득의 성공 및 이순신의 제 2 차 당항포 해전 직후 명나라 선유도사 담종인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라는 지시 각서인 금토패문(禁討牌文)에 답하는 글이라는 천하명문 반박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지면 관계상 그 도도 유려한 반박문을 여기에 직접 소개 할 수 없어 아쉽지만 난중일기 갑오년(1594) 3월 12일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사가, 연구가, 저술가 들도 적시함에 없었던 ‘이순신의 외교역량’을 적극 일본의 연구가가 이미 한 세대 전에 지극히 높게 평가한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순신에게 충무공의 시호를 내린 인조임금의 승지 최유해가 쓴 <이순신 행장>은 조선 조정의 공식 평가라는 의미가 있고 이순신의 성품을 가장 잘 적시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공은 엄하고 진중하여 위풍이 있는 한편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어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이 하는 말이 “대장부 세상에 나서 쓰이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농사짓고 살면 또한 죽는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아첨하여 뜯 영화를 탐내는 것은 나의 부끄러워 하는 바라” 하였다』

또 같은 시기에 이순신보다 39살 아래의 덕수 이씨 문중으로 대제학, 대사헌, 판서를 지내고 그 공적을 기리는 시장을 쓴 택당 이식은 『몸을 세우는 절개와 국란에 죽는 충성과 또 행군하고 용병하는 묘리며 복잡한 사무등을 처리하는 지혜는 이미 다 보고 아는 일이라 비록 옛날의 명장이나 어진 장수들로서 백 년에 한 둘밖에 나지 못하는 인물로도 이 분을 넘어설 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찬탄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이순신의 학익진법을 응용한 이른바 丁자 전법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 함대를 현해탄에서 격파하여 일약 일본의 전쟁 영웅이 된 사려 깊은 도고 헤이하치로(東卿平八郎)은 일본 국민의 열화 같은 환영연에서 쏟아지는 찬사에 『나를 영국의 넬슨에 비기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조선의 명장 이순신에게 비기는 것은 감당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 겸양은 널리 인용되는 비유이다<日朝中連帶理論>.

사후에는 일본의 軍神으로까지 추앙받는 이 도고 헤이하치로의 공적을, 전회에서 언급한 1920년대의 일본해군 전략 연구가 가와다고는 “이순신의 발가락 한 개에도 못 따라간다”고 비교, 단정 했으니 그들에게 이순신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침략의 원흉이요, 싸움터에서는 저본 일이 없어 전쟁의 달인으로 불리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마저도 한산 대 참패 후 “이순신을 만나거든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해안으로 피하라” 라는 굴욕의 피전 명령을 내렸으니 도요토미에게 이순신은 애초부터 넘지 못할 태산이요, 부디치면 오히려 깨어지는 자멸의 절벽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오늘의 일본 지식인들은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해진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순신을 극찬한 학자로는 도쿠도미, 아오야나기 등 여럿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기 역사작가 시바료타로(司馬遼太郎)의 말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순신은……청렴한 인물로, 그 통솔력과 전술 능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재(實在)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 군인이었다. 영국의 넬슨 이전에 있어서의 이름난 장수이기도 하거니와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사람이 없으며, 이 인물의 존재는 조선에 있어서까지도 잊혀지지 않겠지만, 도리어 일본 사람의 편에서 그에게 존경심이 계승되어 명치유신 기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하였으니, 그 업적과 전술이 연구되어져야 한다』